

제주근대교육에 미친 유배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양진건** · 강동호***

《요약》

본 연구는 개화기 제주근대교육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제주에 유배되었던 개화파 유배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해 보았다. 온건개화파 김윤식과 급진개화파 박영효, 애국교육운동가 이승훈, 그리고 이세직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근대의 제주유배인들은 당대의 변화 때문에 누구보다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이었다. 제주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멀고, 경제적으로 빈곤하였기 때문에 근대교육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매우 어려웠는데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그들 개화 유배인들의 내도는 그 자체가 큰 영향력일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제주근대교육 확산에 기여한다. 김윤식은 제주인들과의 담론형성을 통해 제주인들에게 개화사상을 전파하였으며, 박영효와 이승훈은 개화사상 전파는 물론 급진적 영향으로 제주의 근대교육기관 설립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유배인 이세직은 일본어를 직접 가르치는데 이는 제주도에서 실시한 최초의 외국어 교육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은 제주도 근대교육 개안의 원동력이 되었다.

【주제어】 개화기, 제주유배인, 제주 근대교육, 김윤식, 이세직, 박영효, 이승훈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5419).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I. 서론

교육사적 관점에서 근대교육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근대교육을 봉건적 교육형식 또는 도제식(徒弟式) 교육형식을 거쳐 계몽사조를 기초로 나타난 계몽주의 관점으로 규정짓는 입장¹⁾과 19세기 국가주의 시대에 나타난 공교육체제를 근대교육으로 보는 입장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근대를 언제로 보느냐에 다소 견해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876년 개항 이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기까지의 시기를 개화기(開化期)라 하고 근대의 시작이라고 본다. 즉,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봉건적인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 가던 시기가 개화기이다.

당시의 상황은 우리의 자발적인 측면의 개화라기보다는 외부의 억압과 강요에 의한 근대화의 측면이 강했으며 서구 열강들의 침략 야욕이 노골화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개화 지식인층은 교육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근대교육 운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구적 학교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으로 운영되던 기구들을 개편해 새로운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열의는 제주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도에 근대교육이 시작된 시점은 관보(官報) 기록²⁾을 토대로 할 때 1896년 제주목공립소학교((濟州牧公立小學校)로 출발하여 10여 년 간 존재 했었던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향토사가들 사이에서는 운영의 실제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³⁾ 그러나 1896년 제주목공립소학

1) <http://www.doopedia.co.kr/> 두산백과 「근대교육」 참고.

2) 田錫圭 任濟州牧公立小學校 教員 敍判任官六等 … 濟州牧公立小學校教員 田錫圭 … 給二級俸 以上十一月十六日 (대한제국 「관보」, 1896년 11월 18일)
學事 … 濟州郡公立小學校副教員은 玄商休로 任用事. (대한제국 「관보」, 1902년 5월 13일)
學事 濟州牧公立小學校 副教員은 鄭孟鍾으로 任用事. (대한제국 「관보」 1905년 2월 2일)
學事 濟州牧公立小學校 副教員 玄商休와 鄭孟鍾은 解任하고 姜熙龍과 金履珩으로 … 任用事(대한제국 「관보」 1905년 10월 13일)
學事 濟州牧公立小學校 副教員 金履珩은 解任하고 張聖欽으로 … 任用事. (대한제국 「관보」 1905년 11월 13일)
學部令 第二十七號(1906년 8월 27일) 第一條 現在 公立小學校는 普通學校令 施行日로부터 同令에 依호야 設立호는 公立普通學校로 認호미라

3) 이러한 이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근대교육의 기원을 운영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제주공립보통학교와 사립의신학교를 개설한 1907년으로 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1),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p.40.

제주근대교육에 미친 유배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교나 1899년 4월에 설립된 천주교 제주본당의 프랑스어 수업을 위한 시도, 1903년의 제주도 여학당, 1908년의 개신교계 여학당 등이 그 기반이 되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1906년 8월 제주에 부임한 윤원구(尹元求) 군수가 1907년 1월 초등교육기관인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고, 동년 7월에는 중등교육기관의 의신학교(義信學校)를 설립하였다. 1906년 8월 제주에 부임한 윤원구(尹元求) 군수가 1907년 1월 초등교육기관인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였고, 동년 7월에는 중등교육기관의 의신학교(義信學校)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년 뒤인 1909년에는 천주교의 P. M. Lacroux 신부에 의해 사립학교인 신성여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의 이면에는 제주도에 유배를 왔던 지식인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들 유배인들은 봉건적 신분제도의 철폐와 관리임용제도의 개혁에 의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광범위한 학교교육의 전개를 전제로 한 개화운동을 지지했던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제주도에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화기 유배인들의 제주유배과정과 제주도에서의 유배활동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이 제주근대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때로 유배인의 영향에 관한 언급이 지방 사료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파편을 가지고 전체를 그려보려는 고고학적 접근과도 같은 교육사적 상상력에 근거를 한 경우도 없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주도 근대교육의 태동에 관한 의미 있는 성찰과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지방교육사와 한국교육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한걸음 펼쳐나가 보고자 한다.

II. 제주근대교육에 영향을 준 유배인

1. 제주유배인과 유배의 원인

1) 근대의 제주유배인

조선시대 제주도에 입도했던 유배인은 대략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조선말기에 유배를 온 사람들은 대략 40여명⁴⁾에 이른다. 특히 개화기에 인접하여 들어온 27명의 유배인들 가운데 이른바 제주 근대교육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본고에서는 김윤식, 이세직, 박영효, 이승훈 등 4명으로 압축했다. 물론 개회교학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김정회를 거론한 연구⁵⁾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제주도 근대학교에 설립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유배인들을 한정했다.

김윤식, 이세직, 박영효, 이승훈은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사상적 입장이 매우 다르다. 김윤식은 온건개화파로서 박영효는 급진개화파로서 또한 이승훈은 애국계몽가로서 상이한 사상적 입장을 갖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입장과 사상적 차이가 어떻게 제주도에 각자 영향을 주었는지 이에 대해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세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일단 본고에서는 4명 유배인의 제주근대교육에 대한 영향만을 하나의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이들은 선정한 이유로는 김윤식의 경우 구한말 유교적 근대 수용론자⁶⁾로서 제주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시회(詩會)를 통해 제주지식인들과 교류를 했고 그 영향을 받은 인사들이 제주근대교육 운영에 깊은 관련을 맺었기 때문이며 이세직의 권력추수적인 행적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일어강습소를 제주도에서 운영했다는 점 때문이다. 박영효는 갑오개혁의 현장을 체험한 근대인으로 실질적으로 제주근대학교 개설을 위해 직접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제주근대교육의 시동에 큰 기여를 했으며, 제주도 마지막 유배인인 이승훈은 비록 유배기간이 6개월밖에 안되지만 근대학교인 오산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으로서 그의 교육적 영향을 결코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2) 제주유배의 원인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1896년(건양1) 2월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외무대신직에서 면직되었고, 을미사변과 관련해 탄핵을 받아 1897년 12월 21일 종신유배 명을 받고 제주로 유배된다.⁷⁾ 그로부터 3년 6개월간을 제주도에서 보내게 된다.

4) 姜東昊(2013),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66.

5) 梁鎭健(1990), 「濟州流配人の 開化教學活動 研究」, 『民族文化研究』 제23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6) 김성배(2009), 『유교적 사유와 근대 국제정치의 상상력 - 구한말 김윤식의 유교적 근대 수용 -』, 창작과비평사, 참고.

제주근대교육에 미친 유배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그런가하면 이세직(李世植)은 민씨정권이 김옥균을 암살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한 정객이었다. 1894년 3월 이세직은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지내던 김옥균의 부채를 상환해 주고 중국에서의 활동자금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자객 홍종우를 시켜 암살을 한다. 김옥균의 암살에 성공한 뒤, 다시 박영효 암살계획을 실행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결국 본국으로 압송되어 종신유배에 처해져⁸⁾ 1898년 2월 6일 제주도에 도착한다.⁹⁾

박영효(朴泳孝, 1861~1939)는 민씨 척족과 수구파 세력이 집권하자 그와 개화파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개화당 요인들과 협의, 1884년 10월 17일 갑신정변을 일으켜 수구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내무대신으로 있으면서 자주적 개혁을 꾀하였으나 1895년 반역음모사건으로 재차 일본에 망명했다. 1907년 약 13년간의 오랜 망명생활 끝에 다시 귀국, 이완용 내각의 궁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가 고종의 양위에 앞장선 대신들을 암살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년간 제주도에 유배된다.

제주도 마지막 유배인인 이승훈(李昇薰, 1864~1930)은 중등교육기관으로 민족운동의 요람인 오산학교(五山學校)를 개교해 교장이 되어 열성과 성의를 바탕으로 이종성(李鍾聲)·이광수(李光洙)·조만식(曹晩植) 등의 노력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해 민족교육사상 금자탑을 이룩하였다. 교육사업에 헌신하면서 민족운동에 가담하던 중 일제의 탄압으로 1911년 2월 안악사건(安岳事件)에 연루되어 제주도에서 6개월 유배생활을 하였다.

III. 제주근대교육에 미친 유배인의 영향

1. 제주교육에 대한 유배인의 영향

7) 『高宗實錄』 36卷, 34年(1897 丁酉 / 대한 광무(光武) 1年) 12月 20日 : 詔曰: “乙未逆變, 尙切神人之憤. 而渠以世祿之裔, 既有難撿之跡, 懲討截嚴. 輿論愈沸, 至今寬貸, 失刑大矣. 金允植、李承五, 竝姑先濟州牧流終身定配.”

8) 『高宗實錄』 37卷, 35年(1898 戊戌 / 대한 광무(光武) 2年) 1月 7日 : 法部大臣臨時署理外部大臣趙秉式奏: “高等裁判所審理罪人李世植, 稱以韓善會等獄事在逃人捕拿, 乾沒公貨二千元, 上前入對時, 以若不差警務使之任於洪鍾宇, 則將至禍變甚於乙未八月云云之危言妄事, 恐動至尊, 其情節明白. 照用計欺官私取財律及亂言於上者律, 從一科斷, 處流終身”之意, 上奏. 允之.

9) 『續陰晴史』 (金允植, 濟州文化院 역, 2010), p96.

1) 김윤식의 사회활동과 영향

유교적 근대 수용론자였던 김윤식은 1896년 아관파천에 따라 친러파 내각이 성립되자 민비 시해의 음모를 사전에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탄핵을 받고 1897년(건양 2) 제주도 종신유배에 처해져 민란이 확대되기 전 1901년 6월까지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1897년 12월 21일 그는 유배를 떠나며 “가는 이 길은 종신유배길이라 살아 돌아올 기약이 없으니 슬플 뿐이다”¹⁰⁾라고 했다.

김윤식의 제주 유배생활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시회(詩會) 「귤원(橘園)」의 모임과 활동이다. 「귤원」시회는 두 종류가 구성되었다. 우선 1898년 1월 유배와 있던 김윤식을 비롯 서주보 등 유배인 7명이 감옥에서 창화한 시들을 『택반창수집(澤畔唱酬集)』으로 집성하였다. 그 후 감옥에서 풀려난 유배인들과 그 수행원들을 회원으로 해서 「귤원아집회(橘園雅集會)」가 조직되고 1898년 4월부터 11월까지 19회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그 구성원은 이승오(李承五), 이용호(李容鎬), 한선희(韓善會), 정병조(鄭丙朝), 서주보(徐周輔), 황병욱(黃炳郁), 정자소(鄭子綏), 이희섭(李喜奭), 오경재(吳慶材) 등이었다.¹¹⁾

그 후에 다시 「귤원부시회(橘園賦詩會)」를 구성하여 1900년 10월 이후 1901년 1월까지 10번의 모임이 있었다. 이때는 이용호, 한선희, 서주보, 정병조, 오경재, 이철우(李哲友), 강봉헌(姜鳳憲), 정자수, 이민섭(李敏燮), 나인영(羅寅永), 박인주(朴寅周) 등이 참여하였다.¹²⁾

시회에는 제주도 사람들도 10여명¹³⁾ 참여했으며 따라서 이 모임은 유배인과 제주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문예담론장이었다. 담론장이란 지식이 생산되고 소통되는 장으로서 특정 계급이나 계층, 집단의 이해 갈등을 내포하는 쟁점들에 대한 의사와 견해가 발설되고 유통되는 영역이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정치적 지향에 따라 일관된 논리를 갖는 이념 체계나 지식으로 정렬될 필요는 없다. 발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말들의 다발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멸되거나 증폭되는 산발적 소통의 장일뿐이다.

10) 金允植, 앞의 책, p16.

11) 金允植, 앞의 책, pp.93-149.

12) 金允植, 앞의 책, pp.266-271.

13) 제주도 사람으로는 김병윤(金炳潤), 김병하(金秉夏), 김종하(金鐘河), 김응전(金膺銓), 김응빈(金膺彬), 이금식(李肯植), 홍종시(洪鐘時), 성준호(成俊鎬), 김희두(金熙斗), 최창순(崔昌淳), 김창호(金昌鎬), 장규열(張奎烈)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애초 유배인들이 무료를 달랠 요량으로 추진하였던 것이지만 점차 시문에 관심을 가진 제주도 사람들도 가입하여 시작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도 교육과 문화개발의 기폭을 마련하는 작은 계기가 된다. 「굴원」 모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98년 5월 5일 “읍내 젊은이들이 근체시(近體詩)를 지어 가지고 와서 평(評)을 청하였다.”¹⁴⁾ 라는 일기에서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이 어떠한 시를 지었으며 어떠한 담론을 형성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근대정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와중에서도 전통적인 세계관을 유지하였던¹⁵⁾ 김윤식은 집안과의 편지, 신문 등을 통해 시국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굴원 시회 모임에서 그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되었음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제주도 사람들과의 교류, 특히 굴원 시회의 모임은 김윤식의 개화사상을 제주도에 확산시키는 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유배인 7명, 제주체류자 5명 외에 굴원 시회에 참가했던 홍종시(洪鍾時) 등의 제주문인 10여명의 활동 때문이다.

홍종시의 경우는 시회의 동인이 되어 김윤식의 가르침과 소장한 서책으로 학식과 전문을 넓혔던 사람이다. 그는 1905년 제주향교 도훈장, 1917년 제주금융조합장, 3.1 운동 직후 제주면장을 거쳐, 1931년 제주면(面)이 제주읍(邑)으로 승격되자 초대 제주읍장을 지낸다. 이러한 홍종시의 이력에서 보듯이 전통과 근대를 가로지르는 개화기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전통교육제도인 향교의 도훈장이기도 했지만 이후 제주 근대학교들을 총괄하는 면장과 읍장을 지냈는데 이러한 그의 활동은 김윤식의 영향과 무관치 않기에 매개의 역할로서 시회 모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하면 홍종시와 같이 참여했던 최창순(崔昌淳)¹⁶⁾에게서도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김윤식은 그에 대해 “최창순이 있는데 나이 겨우 22세이나 숙성하고 총명하며 사리에 통달하여 남의 급한 일에는 구제하기를 좋아하므로, 섬사람이 모두 그와 사귀기를 원한다.”¹⁷⁾라고 했고 “최창순, 장규열과 더불어 후진(後進) 삼수(三秀)라 불린다.”¹⁸⁾고 명석했음을 칭찬했다. 최창순은 김윤식과의 교류를 통해 전통사유와

14) 金允植, 앞의 책, p.95.

15) 김성배, 앞의 책, p.321.

16) 최창순(崔昌淳) 혹은 최원순(崔元淳)으로 불리었다.

17) 金允植, 앞의 책, p.29.

근대사유의 긴장 속에서 특히 후자에 많이 경도되었다. 이는 그의 근대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그의 관심은 남다른 자식교육을 통해 드러나는데 특히 유배인 박영호의 후원으로 라쿠르 신부가 1909년 제주도에 근대여학교인 신성여학교를 설립하자 누구보다 먼저 딸, 최정숙을 보내 1회로 졸업을 시킨다. 당시로서 제주도에서 최초의 근대여성교육이라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해방 후 최정숙은 신성여학교의 교장으로서 그리고 초대교육감으로서 제주교육에 큰 족적을 남긴다. 그러가하면 최창순의 동생인 최계순(崔季淳)은 해방 후 제주농업고등학교 초대교장을 지냈으며, 아들인 최광식 역시 숙부를 이어 같은 학교 교장을 지냈다.

이렇게 최창순 집안이 제주근대교육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김윤식의 사회 활동에서 얻은 전통과 근대 사이에 가로놓인 심연¹⁹⁾ 속에서 얻어진 견문각지(見聞覺知)의 결과라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순이도 “김윤식이 이끈 궐원시회(橋園詩會)는 유배인과 지방 선비들의 사회 활동으로 제주도의 한문학 발달과 중앙과 지방의 문화 교류에 이바지한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²⁰⁾고 했다.

2) 이세직의 일어강습소 개소와 영향

특정 시설을 통해 제주근대교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유배인 이세직의 일어강습소 개설이다. 제주교육사에서는 이 부분을 그동안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실체가 불분명한 일어강습소 문제보다는 이세직의 이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대 교육과정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일어와 산술이었듯이²¹⁾ 제주도 내의 일어강습소 개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세직의 이력 때문에 탈역사화(脫歷史化)된 기술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어강습소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개화기 또는 일제하 제주교육의 내용을 드러내고자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일어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어강습소 개설은 제주도 일어교육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있다.

18) 金允植, 앞의 책, p.34.

19) 김성배, 앞의 책, p.322.

20) 김순이·표성준(2012),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p. 115.

21) 정선영(2007),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제주근대교육에 미친 유배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도와 일본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밀접하였는데 일본어민이 제주도 어장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879년 이후의 일로서 이것은 조·일통상(朝日通商)장정 및 조·일통어장정 등의 불평등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더욱 증대되어갔다. 더구나 이러한 일본어민의 어장침탈에는 제주도민에 대한 도둑질, 강간, 살인 등의 만행이 부수되기도 하는 등 약탈적, 폭력적 성격이 농후하였는데 이것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강제적 창출이라는 일본 자본주의 조건 속에서 파생된 조선침략의 특질을 이룬다 하겠다.

특히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 후 일인들의 호남에서의 활동은 목포항을 중심으로 가속되어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일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하여졌다. 더욱이 그러한 접촉의 연장으로 도입하는 제주인들의 수요도 점차 늘어감에 따라 일본어의 필요성을 실감하기도 했거니와 일본의 조선침략계획의 하나로 일찍부터 실시된 언어정책 때문에 일어학당의 개설은 개화기 초기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본어 교육을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사람이 유배인 이세직(李世植)이다. 1988년 5월 제주도에 유배되자 그는 사마재(司馬齋)를 빌어 일어강습소를 만들어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김윤식은 “처음에 이세직이 사마재에 세를 내어 살면서, 학생들을 모아 일본어를 가르치니 읍내 소년배가 많이 이세직을 쫓아다녔는데 적객 이태황과 최형순도 가서 배우고 있다.”²²⁾라고 기록했다. 사마재는 학문 연마, 강독 강론과 대과 준비를 위하여 1876년(고종 16)에 제주목사 백낙연(白樂淵)이 창건하였다. 처음에는 제주청년 10여명을 모아 가르쳤고 을미사변으로 유배 온 이태황, 최형순도 함께 배우게 된다. 이세직의 이러한 활동은 역설적으로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근대 외국어교육의 최초 예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일본어 강습과 함께 삼성혈 부근에서 운동을 하며 단합을 과시했다. 유배인 이태황이 세 들어 살던 집주인 훈장 이규항(李奎恒)이 이 사실을 알고 그해 8월 이세직과 제자들을 찾아가 “너희들이 왜놈을 닮을까 두렵다”고 하자 이에 이규항을 발로 차고 책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규항 훈장은 당시 60살의 노인으로서 유럽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욕을 당하자 통문으로 유생 39명을 모이게 하여 “잡 것들의 소굴을 돌려 달라”고 관에 호소했다.

이에 제주목사 박용원(朴用元)은 “적거인은 마땅히 두문하여야 함에도 무리를 모아 일어를 가르치면서 사단을 일으키고 있다”며 “사마재는 유럽에게 돌려주고, 학도

22) 金允植, 앞의 책, pp.118-119.

들은 해산하라. 때리고 욕을 한 사람은 잡아 가두고 엄히 징계하라”고 명했다.²³⁾ 이에 따라 일어강습소는 폐쇄된다. 그리고 이세직이 추자도(楸子島)로 이배(移配)되면서 제주도에 최초로 시작된 근대 외국어교육은 수개월 만에 끝나게 된다.

당시 제주도에도 일본어 강습이 이루어졌으며, 청년들과 유배인들까지 새로운 문물에 접하려는 의식이 강했으나,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과 배일 감정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 1903년 일본인 원길환(原吉丸)에 의해 개설된 일어학당, 1906년 하추자도(下楸子島)에 개설된 진영서숙(進英書塾)등에서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진다.²⁴⁾ 시기상으로 제주도의 일어 교육은 비교적 이른 시기였으며 그 시초는 유배인 이세직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박영효의 근대학교 지원과 영향

윤원구(尹元求) 제주군수는 1907년 4월 사립의신학교(義信學校)를 개설하기 위해 일종의 도민결의대회를 통해 설립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때 군수가 직접 1백원을 희사하자 박영효도 똑같이 1백원을 희사함으로써 사립의신학교의 개교에 큰 공헌을 했다.

윤원구는 1906년 8월 제주군수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근대학교의 개설을 서둘렀다. 이를 위해 우선 그는 1907년 4월, 굴림서원(橋林書院)의 자리에 중등교육기관인 사립 제주의신학교를 개설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연이어 초등교육기관인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²⁵⁾ 학생 모집을 위해 관덕정에서 백일장을 열어 선발된 연장자들은 의신학교에, 연소자들은 제주공립보통학교에 입학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윤원구 군수가 10월에 작성한 「사립제주의신학교비 기본금 연의문(捐義文)」을 볼 때 “이로써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여 더욱 힘썼으나 드는 경비가 커서 일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듯이 의신학교 설립 경비가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에 유지들과 더불어 밤낮 의논하여 한 군의 유림과 신사들로 일단을 이루어 일금 4원씩을 각기 출연²⁶⁾”하기로 함으로써 온 군민들의 기부금으로 설립기본금

23) 金允植, 앞의 책, pp.118-119.

24) 양진건(1995), 「開化期 濟州島 教育史 研究」, 『제주도사연구』 제4집, 제주도사연구회, pp.70-71 참고.

25) 이때 28개교의 公立普通學校가 설치된다. 小田省吾, 『朝鮮教育制度史』, 朝鮮史學會, 1923, pp.71-72 참고.

26) 윤원구, 「私立 濟州義信學校費 基本金 捐義文(필사본)」

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에 박영효가 100원을 회사했던 것이며 이로써 학교설립자금 마련에 기폭제가 되었다.

의신학교의 성격에 대해 “학생의 자격은 대체로 보통과는 중학교 대우요, 농림학교는 전문학교의 대우요, 연구과는 대학 대우이다. 청년 자체가 이로부터 개명(開明)의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국가의 기초를 역시 만년이나 기약하였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은가.²⁷⁾”라고 했듯이 중등학교의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의신학교의 설립은 제주도 중등교육기관의 효시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록 윤원구 군수의 발의로 시작은 되었지만 제주군 5개면 88개 마을의 전 주민들이 출연한 민립학교의 형식을 취했다는 사실은 매우 관심을 끈다. 설립을 주도한 이들은 제주도내 신흥세력 유지들로서 이들은 사전에 의신학교계를 만들어 자금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림들까지 끌어들이므로써 전도민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제주유림의 결집체였던 옛 궐립서원 터전인 경신재(敬信齋) 자리에 교사(校舍)를 마련함으로써 신학문과 구학문의 화합을 이루어냈다는 점은 특이하다.

박영효는 1890년대 초 일본 고베에 옥신의숙(旭新義塾)을 창립하여 교육의 보급에 의하여 조선 민의 어리석음을 계몽할 것을 주창하며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 양반 자제들을 문학생으로 모집하여 교육시켰는가 하면, 1893년에는 친린의숙(親隣義塾)을 설립하여 젊은 한국인의 교육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그러다가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 직접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1901년 조일신숙(朝日新塾)을 설립하여 이 학교를 통해 신학문만이 아니라 무술까지 겸비한 젊은 세력을 직접 양성해 보고자 하였던²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근대학교설립 지원에도 전혀 망설임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박영효는 라크루 신부(Lacroux, 具瑪瑟)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제주도 최초의 근대여학교인 신성여학교 개교에도 큰 기여를 한다. 라크루 신부는 박영효의 도움에 대해 뮈텔(Mutel) 주교에게 보내는 1908년 10월 1일자 “저희에게 매우 호의적인 박영효라는 분의 자발적인 협력 덕분에 제주도에 관의 인가를 받은 서양식 여학교설립 가능성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²⁹⁾ 관대한 한 분의 자발적인 협력 덕분에 제주에 여학교 설립의 가능성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27) 윤원구, 「私立 濟州義信學校費 基本金 捐義文(필사본)」

28) 유병용(2004), 『박영효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230-294.

29)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1984), 천주교부산교구사자료집 제1집, 『교구연보(1878-1940)』, p.41.

하였다.

그런가하면 1909년 뫼펠 주교의 보고서에서도 “제주부에 있는 라크루 신부는 여학교 하나를 얼마 전에 설립하였습니다. 이 일에서 라크루 신부는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그 같은 일에 회사를 아끼지 않는 한 비(非)신자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는 정사에 진저리가 나서 스스로 이 섬에 은퇴하여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는 바로 선왕(즉 철종)의 사위이고 전 영의정이었습니다.”³⁰⁾라고 하여 박영효의 도움으로 제주도 여학교 설립 작업이 본격화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라쿠르 신부의 학교 설립 계획은 1909년 9월부터 본격화되는데 ‘학교는 수녀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어린 여학생들을 개종시키는데 열의를 쏟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09년 10월 18일 허가³¹⁾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허가조건은 형식에 불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적 조건을 단것은 1901년의 신축교난을 의식한 정부측의 처사가 아니었던가 사료된다.

그런데 신성여학교의 개교는 한국가톨릭교육사는 물론 한국교육사에서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개신교의 일반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던 광범위한 교육운동에 비할 바는 못 되었지만 당시 가톨릭의 교육운동은 한국교육사상 최초의 서구식 교육기관이었던 학교였던 1855년의 충북 제천의 배론신학당을 계승하고 있었으며 신성여학교의 개교 또한 그러한 계승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내에서도 신성여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대구대목구(교구)내의 학교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샬트로 성바로 수녀회가 운영하는 학교는 대구, 제주 두 곳이었는데 1905년 을사조약 이후 한국이 국권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되자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설립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육사업에 관한 한 개신교에 비해 가톨릭은 그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성여학교의 성공은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었다.

“샬트로 성 바로로 수녀회의 조선인 수녀들이 맡고 있는 여자 학교들은 그 학교가 세워진 곳마다, 비단 교우들로부터 만이 아니라 외교인들로부터도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여선생에게 지니는 애정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

30)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회 · 한국교회사연구소(1997), 제주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3집,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천주교 제주교구, p247.

31)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회 · 한국교회사연구소(1997), 앞의 책, p233.

제주근대교육에 미친 유배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다. 불행히도 이런 종류의 학교가 교구 내에 두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대구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두 학교가 다 가까운 장래에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³²⁾라는 드망즈 주교의 1913년도 보고서는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이다.

그런가하면 1910년 향사당 서쪽에 제주도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성내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교회는 중인문 부근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이기풍 목사가 박영효의 도움으로 출신청사를 매입하여 설립할 수 있었다. 이기풍 목사는 최초의 예배당으로 성내 일도리 중인문 안에 6칸의 초가집 두 채를 구입한다. 두 번째는 1910년 옛 훈련청인 출신청사를 구입해 옮겼다. 박영효는 이기풍 목사의 선교 활동을 지켜보다가 교회 확장을 위해 100원을 헌금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건축헌금을 함으로써 가능했다. 아울러 성내교회 부설로 영흥학교도 설립되는 계기가 된다.

이로써 신성여학교와 의신학교의 개교는 물론 성내교회의 건립과 그로인한 영흥학교의 개설에도 큰 역할을 함으로써 박영효는 근대제주교육의 개화에 큰 공헌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큰 공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조선시대 500년동안 내도한 200여명의 제주유배인들 가운데 제주근대교육에 가장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람은 박영효 뿐이며 그 덕분에 서너 개의 근대학교가 개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영효는 급진개화파의 한사람으로 일본 근대화 사상의 원조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사학육성과 사학중립론을 영향받고 “소·중학교를 설치하여 6세 이상 남녀로 하여금 모두 취교(就校) 수학(受學)케 할 것을³³⁾” 주장한 바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라쿠르 신부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라쿠르 신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박영효는 학교 설립의 의지를 실현시켜 준 사람이며 박영효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쿠르 신부는 자신의 교육계몽주의 사상을 실천하게 해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차가 실리와 명분을 교환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박영효의 활동은 제주근대교육은 물론 천주교와 개신교 등과 관련되어 기독교가 제주도 문화에 끼친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³⁴⁾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32)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41.

33) 朴泳孝, 「開化上疏文」

34) 장로회신학대학교(2014), 「2014년 제주학술세미나 자료집」, 20세기 전반기 외래종교가 제주 전통사회에 끼친 영향, 참조.

4) 이승훈의 근대적 모범과 영향

이승훈은 1911년 신민회 사건으로 피검되어 제주도로 유배되면서 2년 동안 거주 제한을 받았다. 유배 6개월만에 다시 105인 사건으로 서울로 소환되어 5년간 복역한다. 그는 제주 유배때 조천리 김희주 집안의 노복이 거처하던 별채에서 살았다. 당시 성내교회의 이기풍(李基豊) 목사와 교류하면서 거금을 내놓아 교회 부설 영흥학교(永興學校) 육성에 도움을 주었다.³⁵⁾

영흥학교는 1917년 현재 제주시 삼도2동의 성내교회에 설립되었던 4년제 어린이 야간 강습소였다. 설립자 윤함애(尹咸愛)는 평양 송의여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이기풍(李基豊) 목사와 결혼하여 1908년에 부부가 함께 제주도로 들어왔다. 제주에 도착하여 삼도2동 서문동 근처에 성내교회를 세우고 부설로 영흥학교를 열었다. 1917년 어린이가 10명이 되자 4년제의 영흥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남녀 아동 10여 명을 모아 초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사로 조봉호, 좌징수, 김동선, 김세라, 강규언, 홍마대, 홍마리아 등이 활동했다. 여자 어린이의 기초 교육과 기독교 선교에 중점을 두었다. 1910년 교회에 여자 어린이 3~4명을 수용하여 윤함애가 직접 가르쳤다.³⁶⁾

이처럼 이승훈은 제주도에서 기독교 사상과 신교육, 새로운 정신을 영흥학교 교사들과 주민들에게 전하며 교육과 문화 사업에 신경을 썼다. 전국의 사립학교가 1910년에서 4년 동안 1973개교에서 1242개교로 3분의 2로 축소되었던 반면 유독 제주도에서만은 11개교에서 24개교로 늘어났는데³⁷⁾ 이는 이승훈의 영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교육적이다.

나는 제주도에 와서 산수가 아름답고 기후가 따뜻한 데 놀랐다. 제주도는 탐라국으로서 한반도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늘이 여기에 둔 것이다. 제주도가 한반도의 본이고 한라산이 산의 본인 것 마냥 제주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제주도로 하여금 한반도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학교와 공장을 많이 세워야 한다. 제주도는 남해에 솟아있는 섬이 되어 육지

35) 김찬흡(2000),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pp.333-334.

36) 양진건(2012),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pp.135-138.

37) 조선총독부학부국(大正 5年 : 1916), 조선인교육사립학교통계, 문창규(1998),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8 재인용.

에는 목장과 약초재배와 특수농작이 적당하고 해안과 바다에는 어항과 어장을 만 들어야 할 것이다.³⁸⁾

이런 연유에선지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손수 비를 들고 안뜰과 거리를 깨끗하게 쓸어 주변 동네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어린아이들의 코를 닦아주고 옷고름도 매어 주었다. 이 일로 하여 어린아이들의 부모와도 알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된다고 설교하였다. 한 달 뒤에 그는 동네 청년들을 모아서 우물을 깨끗이 치우기까지 하였다. 그가 온 이후로 동네가 확실히 깨끗해졌고 싸움이 없어졌으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효가 늘었다고 한다.³⁹⁾

이승훈은 제주시 금성(錦城) 교회의 장로 이덕련(李德連)과 서로 교유하는데, 후일 이장로의 아들 이의종(李義宗)은 오산(五山)학교로 유학을 가게 된다.⁴⁰⁾ 이처럼 이승훈은 제주의 근대교육의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제주인들에게 근대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배지에서도 교육자의 역할을 멈추지 않았다.

2. 유배인의 영향에 의한 제주근대교육의 특징

본고에서 사용하는 영향(influence)이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로써 유배인들이 유배지 현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형식적, 비형식적인 교육적 효과나 작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속에는 일정한 기간이나 형식이 굳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이를테면 우암 송시열이 제주도 유배생활이 비록 3개월에 불과함에도 제주오현(濟州五賢)의 한 사람으로 배향함으로써 제주전통교육에 대한 그의 효과나 작용을 중요하게 인정하듯이⁴¹⁾ 근대 제주유배인들의 영향 역시 마찬가지로의 논리이다.

제주교육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영향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실마리도 없다.

38) 김기석(2005), 『남강 이승훈』, 한국학술정보, p.119 재인용.

39) 양진건(1999),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p.232.

40) 김찬흡, 앞의 책, p.334.

41) 양진건(1988), 「濟州 五賢의 敎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왜냐하면 조선시대 제주도는 출륙억제정책 때문에 출륙을 통한 스승과의 만남은 조선말기에 들어서나 비로소 가능했고 그 이전에는 유배인들의 영향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엔 없었다.⁴²⁾ 조선말기에 들어 그것이 가능해졌다고는 하나 유배인이 내도를 하는 한 그들의 교육적 영향은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오히려 전통과 근대의 긴장 속에서 내도한 유배인들의 영향은 다른 시기의 그것과는 달랐으며 그로 인해 근대제주교육의 맹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근대의 제주유배인들은 당대의 변화 때문에 누구보다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제주도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멀고, 경제적으로 빈곤하였기 때문에 근대교육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매우 어려웠는데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유배인들의 내도는 그 자체가 큰 영향력일 수밖에 없었다.

김윤식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교육적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근대적인 각성을 어느 정도 일으킨 장본인이라면 이세직은 그의 이력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어강습소를 제주도에 소개했고 누구보다 박영효는 제주근대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승훈 역시 교육적 계몽을 충실히 함으로써 제주근대교육의 개안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모두 근대적 유배인이라는 이미 각성된 주체에 의해 제주도 사람들에게 행해지던 영향이 다른 무엇보다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단일화됨으로써 근대제주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주근대교육은 유배인의 영향에 의한 상황추수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영향을 기반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자율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이것이 곧 근대제주교육사의 특징이며 나아가 제주교육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IV. 결론

본 연구는 개화기 시대 제주로 유배온 여러 인사들이 제주 근대교육에 끼친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유배인들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은 우선 죄인이라는 유배인들의 신분적 제약과 역할 때문에 일부 한정된 제주도 지식인들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42) 양진건(1991),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고.

제주근대교육에 미친 유배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교류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영향은 제도적이기보다는 계몽적이며 형식적이기보다는 비형식적이었다. 이렇게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양이나 질에 있어서 빈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인들과 제주도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당대의 제주 교육의 현실과 여건상 의미 있는 교육적 자극 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개화기 시대 유배된 온건개화파 김윤식과 급진개화파 박영효, 그리고 애국교육운동가 이승훈등은 그들의 내도하여 제주인들과 교류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들과의 교류로 인해 제주인들이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음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들 개화파 유배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제주근대교육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김윤식은 제주인들과의 담론형성을 통해 제주인들에게 개화사상 확산시키는 매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영효와 이승훈은 개화사상 전파는 물론 급진적 영향으로 제주의 근대교육기관 설립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유배인 이세직은 일본어를 직접 가르침으로써 제주도에서 최초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제주의 근대교육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재력가에 의하지 않고 개화적 지도자의 주도하에 각계각층의 유지 인사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립학교의 특성을 갖고 있다.⁴³⁾ 이들 제주의 개화 지도자와 유지들은 대부분 개화 유배인들과 교류한 인물들과 그의 자손들이었다. 이런 맥락 역시 개화기 제주유배인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 볼 수 있다.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제주 지식인들이 도외(島外)로 직접 출륙(出陸)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개화파 유배인들의 영향은 달혀있던 제주의 문호를 여는 견인차가 되었을 것이며, 제주도 근대교육 개안의 원동력이 되었다.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 앞의 책, p45.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朴泳孝, 「開化上疏文」
金允植, 『續陰晴史』
강동호(2013),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기석(2005), 『남강 이승훈』, 한국학술정보.
김봉현(2005), 『濟州島流人傳』, 제주시우당도서관.
김성배(2009), 『유교적 사유와 근대 국제정치의 상상력』, 창작과 비평사.
김순이·표성준(2012),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김찬흠(2000),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문창규(1998),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진건(1988), 「濟州 五賢의 敎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
화연구소.
(1990), 「濟州流配人の 開化敎學活動 研究」, 『民族文化研究』 제23집, 고려대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朝鮮朝 濟州 敎育思想史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開化期濟州島敎育史研究」, 『제주도사연구』 제4집.
(1999), 『그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2001), 『제주교육행정사』, 제주문화.
(2012),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유병용외(2004), 『박영효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윤원구, 「私立濟州義信學校費基本金捐義文(필사본)」
장로회신학대학교(2014), 「2014년 제주학술세미나 자료집」, 20세기 전반기 외래종
교가 제주 전통사회에 끼친 영향.
정선영(2007),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제주근대교육에 미친 유배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
천주교부산교구사자료집 제1집(1984), 『교구연보(1878-1940)』 .
천주교제주교구(1997),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두산백과』 , <http://www.doopedia.co.kr/>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exile that influenced on
modern education in Jeju**

Yang Jin Geon · Kang Dong Ho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exile have influenced on Jeju when they had been exiled to Jeju during the time of enlightenment. Especially, the study is about Kim Yoon Sik in a school of moderate enlightenment, Park Young Hyo in a school of radical enlightenment, patriot Lee Seung Hun, and Lee Se Jik.

People who were exiled to Jeju got to know more about an importance of modern education than any other people. In case of Jeju, it was too difficult to build a basement of modern education because of geographical reason and poverty. Therefore, people who were exile to Jeju had great impact on Jeju because they had already known the importance of modern education.

They used their ability and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modern education in Jeju. Kim Yoon Sik spread the thought of enlightenment to Jeju through making discourse. Park Young Hyo and Lee Seung Hoon helped not only the spread of enlightenment but also, establishment of modern education institutions. Moreover, Lee Se Jik taught Japanese in Jeju, and it was the first foreign language teaching. A variety of education activities became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 quality of modern education in Jeju.

Key words : The time of enlightenment, Exile in Jeju, Jeju modern education, Kim Yoon Sik, Lee Se Jik, Park Young Hyo, Lee Seung Hoon.

§ 논문 투고 : 2014. 5. 17.

§ 심사 시작 : 2014. 5. 25.

§ 게재 결정 : 2014. 6. 12.